

픽션으로서의 역사: 헤이든 화이트(Hayden White)의 역사론

안 병 직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

I.

헤이든 화이트는 역사가지만 역사가라는 지칭만으로 그의 학문적 관심과 활동을 표현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 화이트의 학문적 경력과 활동은 역사학의 테두리를 넘어서며 특히 문학 및 문학비평 분야에서 그의 명성과 영향력은 역사학을 능가한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산타 크루즈 소재) 역사학과에서 오랫동안 재직하다 현재 스탠포드 대학 비교문화학과 자리를 옮긴 특이한 이력이나, 현존 역사가 가운데 역사학 외부에서 “가장 널리 인용되는 역사가”라는 그에 대한 평가는¹⁾ 그 점에서 매우 시사적이다.

화이트에게는 문학이론가 혹은 비평가라는, 통상 역사가에게 찾기 어려운 독특한 면모가 있지만, 그가 강조하는 것은 자신이 무엇보다도 정식으로 수련

1) R.T. Vann, “The Reception of Hayden White”, in *History and Theory* vol. 37 (1998), No. 2, p. 148.

과정을 거친 역사가라는 점이다.²⁾ 그럼에도 정작 역사학 내부에서 화이트를 보는 눈은 그리 단순치 않다. 사실 역사가로서 화이트는 역사학계 내에서 극단적으로 엇갈린 평가와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한편으로 화이트는 역사를 보는 인식과 사고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온 인물로서 “현대 역사학에서 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찬사를 받고 있다.³⁾ 다른 한편으로 그는 역사적 실재(reality)의 객관적 인식 가능성과 역사학의 과학적 성격을 부인함으로써 역사학의 존립기반을 위협하는, 그리하여 더 이상 역사가로 인정할 수 없는 존재로 비판받고 있다.⁴⁾

화이트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하나의 분과 학문으로서 역사학의 자기인식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다. 즉 주로 敍事(narrative)라는 역사서술의 형식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역사의 본질과 역사적 지식의 성격을 밝히고자 하였던 화이트의 시도는 역사학의 본령인 실증적 연구와는 거리가 먼 ‘사변적인’ 역사이론이나 역사철학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다. 그 점에서 무려 10여 년의 작업 끝에 1973년 출간한 화이트의 主著 『메타역사(Metahistory)』가 한동안 역사학계에서 거의 주목을 받지 못하였던 사실

2) 화이트는 미시간(Michigan) 대학에서 중세 및 르네상스사를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웨즐리언(Wesleyan) 대학을 거쳐 산타 쿠르즈 소재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서 교수직을 역임하는 동안 ‘의식과 사상의 역사(History of Consciousness and Ideas)’를 담당하였다. 본인은 자신의 전공을 ‘문화의 역사(History of Culture)’로 소개하기도 한다. K. Jenkins, “A Conversation with Hayden White” in *Literature and History*, vol. 7(1998), issue 1, pp. 68-82; E. Domanska, “Human Face of Scientific Mind” (An Interview with Hayden White), in *Storia della Storiografia*, vol. 24(1993), pp. 5-21.

3) D. LaCapra, Review on *Tropics of Discourse*, in *MLN*, vol. 93(1978), p. 1037.

4) A. Marwick, “Two Approaches to Historical Study: The Metaphysical (Including ‘Postmodernism’) and the Historical”, in *Journal of Contemporary History*, vol. 30 (1995), No. 1, pp.5-35; G. Iggers, Historiography between Scholarship and Poetry: Reflections on Hayden White’s Approach to Historiography, in *Rethinking History*, vol. 4(2000), No. 3, pp. 373-90 참조.

은 우연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⁵⁾

그럼에도 화이트의 『메타역사』는 그 동안 근 10여 차례 가까이 판을 거듭하며 오늘날 역사 이론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책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다. 초판 출간 후 30여 년이 지난 지금 『메타역사』는 바로 이 책의 분석 대상이었던 19세기의 저명한 역사가와 ‘역사철학자’들의 고전적 저술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스스로가 고전의 반열에 들게 된 것이다. 이처럼 『메타역사』가 갖는 생명력과 고전으로서의 가치 하나만으로도 화이트가 역사학에서 결코 무시하거나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존재라는 점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물론 많은 역사가들이 역사연구와 관련하여 화이트의 중요성을 지적하는데 선뜻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역사학 혹은 역사가에 대한 전통적인 관념에서 보면 화이트는 역사가의 범주에 들기 어렵다. 통상 특정 과거를 대상으로 과연 그것이 어떠한가를 밝히기 위해 문서고의 자료를 뒤지는 것이 역사가들의 일상적 작업이라면 화이트의 연구는 이와는 다르다. 역사에 대한 그의 연구는 거의 대부분 이론적인 문제를 주제로 한 것이고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분석보다는 에세이 형식을 띤 비평적 논의가 주류를 이룬다. 게다가 철학, 문학, 언어학 등 역사 외 다른 학문 분야의 지식에 어두운 경우 그런 논의를 따라가기가 쉽지 않다. 특히 역사서술에 대한 그의 분석에서 핵심을 이루는 敘事와 修辭法(trope) 이론은 역사가들에게 대부분 매우 낯설고, 그런 만큼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더구나 그의 이론 가운데는 역사학이 하나의 분과학문으로서 존립 근거를 상실하고 막다른 궁지에 빠질 수도 있는, 그래서 수용하기 어려운 논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 모든 지적에도 역사에 관한 화이트의 논의는 여러모로 주목하고 진지하게 검토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우선 화이트의 저술에는 역사뿐 아니라 문학과 철학 등 인문학 전반에 걸친 폭넓고 풍부한 지식이 두드러진다. 그

5) 화이트는 『메타역사』를 원래 코넬(Cornell) 대학 출판사에서 출판할 생각이었으나 출판사에서는 출판할만한 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Jenkins, Conversation, p. 73)

의 저술은 결코 많지 않지만 곳곳에서 역사가, 철학자, 작가, 문학비평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을 섭렵하고 있고, 실존주의, 구조주의, 포스트구조주의, 모더니즘 등 그가 섭렵한 현대의 주요 사조에 대한 논의를 담고 있다.

그러나 역사에 관한 화이트의 논의에서 주목할 점은 다른 무엇보다도 독창성이다. 역사의 본질은 서사라는 역사서술의 형식에 있다는 그의 역사론은 서사형식이라는, 역사연구에서 그 동안 완전히 간과해온 역사의 새로운 측면에 눈을 뜨게 한다. 역사에 대한 기성 관념에 큰 충격을 준 화이트의 역사론에 대하여 1970년대 이래 최근에 이르기까지도 반발과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그것이 지닌 독창성과 영향력에 대한 반증이라고 할 만하다.

그러나 화이트의 역사론을 둘러싼 논란은 종종 그의 입장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거나 잘못 이해하는 데서 비롯되기도 한다. 포스트모더니즘과 화이트의 역사론 사이의 관계가 그 대표적인 경우이다. 역사학계에서는 대체적으로 화이트를 역사학 내 포스트모더니즘의 대변자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고, 그것은 화이트에 대한 지지자와 비판자 양자 모두에 해당한다. 그러나 그런 인식은 화이트의 역사론을 단편적이고,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데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화이트 본인의 입장과 거리가 있는 것이다.

이 글은 역사에 관한 화이트의 논의를 살피고자 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우선 『메타역사』를 비롯한 화이트의 저술을 중심으로 그의 역사론에서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서사와 수사법 이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이 글은 역사의 문학성을 강조하며 과학으로서의 역사학의 자기인식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화이트의 입장을 분석, 검토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화이트의 역사론을 둘러싼 비판과 반박의 논변을 살펴보고 그의 역사론을 나름대로 평가해보고자 한다.

II.

화이트의 역사이론에서 가장 독창적이고 돋보이는 것이 서사이론이다. 서

사에 대한 화이트의 관심은 역사적 사건의 서술로서 역사에 대한 그의 근본적인 개념규정에서 출발한다. 화이트는 역사를 밖으로 드러나는 가장 분명한 특징에 따라 “서사적 散文 담론(prose discourse) 형식을 취한 언어의 가공물(verbal artifact)”이라고 정의한다.⁶⁾

역사서술의 형식인 서사에 대한 화이트의 관심은 역사학에서는 예외적인 것이다. 일반적으로 역사가들은 서사를 역사서술의 형식일 뿐 서술의 내용과는 의미론 상 아무 관련이 없다고 여긴다. 다시 말해 서사는 역사서술을 수식하고 윤색할 뿐 서술의 의미나 진실성과는 무관하고 가치 중립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화이트에게 서사의 의미는 완전히 다르다. 화이트의 입장은 한 마디로 말해 역사서술에서는 서술의 형식인 서사가 서술의 내용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역사서술은 서술의 토대가 되는 개별 사실 각각에서는 찾을 수 없는 별개의 독특한 의미를 갖는데, 이 서술된 역사의 의미는 바로 개별 사실을 엮어 전체적으로 하나의 이야기(story)를 구성하는 서사의 기능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역사서술은 단순히 과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만이 아니라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며, 서술대상으로서 과거의 의미는 서사의 특징적 요소인 이야기를 꾸미는 방식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 결국 화이트의 서사이론은 역사서술을 과거에 대한 의미창출의 과정으로 보고 이 과정에서 서사가 갖는 역할과 기능을 분석하는 것이다.

서사의 특징과 기능은 서사를 서사적 형식을 갖추지 못한 역사기술의 유형, 즉 연보(annals)나 연대기(chronicle)와 비교할 경우 잘 드러난다. 연대순으로 정리한 사건의 목록이라 할 수 있는 연보에는 서사의 요소가 완전히 결여되어 있다. 사건을 발생한 순서대로 기술하는 연대기의 경우도 종종 하나의 이야기를 시도하면서 서사성(narrativity)을 획득하고자 하지만 결국 실패하고 만다. 연대기의 시작은 이야기의 서두보다는 기록의 시점일 뿐이며, 연대기의 끝도 사건의 결말(conclusion)이라기보다는 단순히 시간상의 종료(termination)를 의

6) H. White, *Metahistory. The Historical Imagination in Nineteenth-Century Europ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73) p. ix.

미하기 때문이다. 연보는 역사적 사건들이 아무 이야기 형태도 보여주지 못하는 것처럼, 연대기는 미완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처럼 기술하는 것이다.⁷⁾

서사의 경우는 이와 다르다. 서사에서는 연대기가 하나의 완벽한 이야기로 탈바꿈한다. 서사를 구성하는 일련의 사건은 연대기에서 선택되며, 그것들은 더 이상 시간적 연속의 일부로서 동등한 가치를 지닌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이야기의 요소로서 기능에 따라 각각 중요성을 달리하게 되며, 전체적으로 의미 있는 하나의 과정을 구성하는 형식적 일관성을 보여준다. 근본적으로 始終이 없는 연대기는 무한정 계속될 수 있지만 서사는 起承轉結을 갖춘 하나의 완결된 이야기인 것이다. 즉 서사에서는 서술되는 사건들이 시작, 중간, 끝이 분명한 하나의 스펙터클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배치되며, 그 가운데 특정 사건들은 각각 시작, 이행, 종결의 모티프로써 작용한다.

사건의 연대기가 서사를 통해 하나의 완결된 이야기로 바뀌게 됨으로써 서사에 대해 사람들은 여러 종류의 물음을 제기할 수 있다. 예컨대 서사의 진행에서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으며,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하였고, 또 왜 그런 방식이 되었으며, 어째서 결말은 그렇게 되었는지 등이 그러하다. 이러한 물음들은 역사가가 서사의 형식으로 역사를 서술할 때 미리 예상하고 또 답변해야 할 것들이다. 그러나 형식적 일관성을 갖춘 이야기의 요소로서 사건 사이의 관계에 관한 이런 물음과는 별도로 서사 형식의 역사서술에 대해 역사가가 답해야 할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 그것은 바로 서사를 구성하는 이야기 전체의 의미가 무엇인가, 혹은 그 이야기의 '요점'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화이트에 따르면 이러한 물음은 완결된 이야기를 구성하는 일련의 사건의 전체적 구조와 관련된 것으로 역사가는 서사형식의 역사를 서술하면서 세 가지 측면에서 이에 대한 답변을 시도한다.⁸⁾

7) H. White, *The Content of the Form. Narrative Discourse and Historical Representation*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7), pp. 1-10.

8) 아래 서술 전반에 대해서는 White, *Metahistory*, pp. 1-42; *Tropics*, pp. 51-80 참조.

화이트가 지적하는 그 첫 번째 측면은 ‘플롯(plot)’이다. 플롯이란 이야기의 구성, 즉 줄거리로서 역사가가 일련의 사건을 이야기로 꾸미면서 그 이야기가 점차 특별한 종류의 이야기임이 드러나도록 하는 방식을 말한다. 화이트는 이야기 없이 서사적 역사서술이 불가능하듯이 플롯 없이 역사가의 이야기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다시 말해 역사가의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의미를 가지고, 그리하여 서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하나의 특별한 종류의 이야기가 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플롯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화이트는 서사적 역사서술에서 플롯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그것이 갖는 ‘설명효과’를 지적한다. 화이트에 따르면 역사가는 이 플롯을 통해 독자들에게 자신이 서술하는 역사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으며, 거꾸로 독자는 역사가의 이야기에 담긴 플롯구조를 파악함으로써 이야기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플롯에 관한 논의에서 화이트가 특별히 강조하는 점이 있다. 그것은 역사가의 이야기에 플롯을 제공하는 것은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역사가라는 점이다. 화이트는 역사적 서사란 역사적 사건의 模寫(mimesis), 즉 역사가가 사건의 연대기에 묻혀 있는 이야기를 찾아내고, 밝혀내는 것이라는 통념을 잘못된 것으로 본다. 화이트에 따르면 사건 자체는 어떤 줄거리도, 어떤 이야기도 제공하지 않는다. 동일한 사건으로 여러 종류의 이야기를 꾸밀 수 있다는 사실이 그것을 단적으로 증명한다. 예컨대 ‘왕의 죽음’이란 사건에 대해 각각 시작, 종결, 이행의 모티브를 부과하면 각기 서로 다른 세 종류의 이야기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이다.

화이트에 따르면 역사적 서사에 필요한 플롯을 역사가가 제공한다는 점에서 역사가는 소설가와 더 이상 구별이 안 된다. 그리하여 화이트는 역사가의 플롯 구성(enplotment)를 설명하기 위해 프라이(N. Frye)의 비평이론을 수용한다. 즉 역사가도 소설가와 마찬가지로 플롯을 짜기 위해서는 소위 ‘원형적 플롯구조(pre-generic plot-structures)’에 의존하며, 근본적으로 로망스(Romance), 비극(Tragedy), 희극(Comedy), 풍자(Satire)의 네 종류 가운데 선택한다고 본다. 로망스는 악이 선을, 미덕이 악덕을, 빛이 어둠을, 인간이 운명을 딛고 승리하는 구원의 드라마임에 반해 풍자는 그와 정반대로 파탄의 드라마이다. 인간은

운명의 주인이기보다 포로라는 두려움, 그리고 인간의 의식과 의지로써는 인간의 영원한 적인 죽음의 힘을 끝내 극복할 수 없다는 체념이 그것을 지배한다. 희극과 비극은 로망스와는 달리 인간의 소생노력을 가로막는 힘을 인정하고 갈등을 심각하게 고려한다. 동시에 그것들은 풍자와는 달리 인간이 적어도 부분적 혹은 일시적으로나마 운명에서 해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면서도 희극은 인간과 인간, 인간과 세상, 인간과 사회 사이에 대립하고 갈등하는 힘의 화해와 조화의 가능성을 기대하고 낙관적 희망을 표현함에 비해 비극은 그 한계를 강조하고 갈등의 결과를 비관적으로 전망한다.

화이트가 제시하는 플롯의 유형에 대해 구체적인 역사적 사례를 들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예컨대 노예제의 폐지, 민주주의의 승리, 독립의 달성 등을 개인, 집단 혹은 민족이 고난과 역경을 딛고 영웅적으로 그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으로 기술한다면 그것은 로망스의 플롯이다. 아메리카 인디언이나 유대인 대량학살 등을 인간이 인간의 잔혹함과 사악함에 무릎을 꿇고 파멸하는 과정으로 플롯화 한다면 그것은 풍자다. 그러나 화이트는 특정 사건이 반드시 특정 플롯만 허용하는 것이 아님을 역설한다. 그는 18세기 말 프랑스 혁명과 구제도의 몰락에 대해 19세기의 역사가들이 얼마나 다양한 플롯을 동원해 역사를 서술하였는지 지적한다. 화이트에 따르면 미슐레(J. Michelet)는 혁명을 로망스로 그린 반면 버크(E. Burke)는 풍자로 꾸몄고, 토크빌(A. Tocqueville)은 비극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따라서 화이트의 입장은 원래부터 비극이나 희극적인 사건이란 없으며 역사가가 플롯을 선택하여 이야기를 꾸밀 때 비로소 사건은 비극 또는 희극이 된다는 것이다.

플롯과 더불어 서사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역사가가 취하는 또 하나의 접근방식은 '형식 논증(formal argument)'이다. 플롯이 역사적 설명의 미학적 차원에 해당한다면 논증은 認知的(cognitive) 차원에 속한다. 즉 화이트에 따르면 역사적 사건들이 어떤 양상으로 일어났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설명이 플롯이라면 논증은 왜 그렇게 되었는가하는 물음에 대한 답변이다. 역사가가 선택한 플롯에 포함된 사건들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인지하는 것이 논증적 설명의 목표인 것이다. 화이트는 역사가가 동원하는 논증 방식으로 네 가지 모델을 제

시하는데, ‘형태론적(Formist)’, ‘유기론적(Organicist)’, ‘기계론적(Mechanist)’, ‘컨텍스트적(Contextualist)’ 모델이 그것이다.

화이트가 ‘개별기술적(idiographic)’ 이라고도 부르는 형태론적 모델은 ‘역사 현장(historical field)’⁹⁾에 존재하는 다양한 실체들의 개별적이고 특수한 성격을 부각시키는 방식이다. 화이트는 형태론 모델을 역사가가 제공하는 일종의 ‘확대경’이라 보고 있다. 즉 형태론적 논증방식을 통해 역사적 행위나 사건, 행위 주체의 고유하고 독특한 속성이 밝혀지고 그를 통해 처음에는 독자들에게 상호구분이 어렵고 모호하던 것들이 분명해지고 명확하게 구별된다는 것이다. 역사주의(historicism)의 선구자로서 역사에서 개별의 독자성을 강조한 헤르더(J.G. Herder)는 역사적 설명에서 형태론적 논증모델에 의존한 대표적 사례이다.

유기론적 논증방식은 ‘역사현장’에 등장하는 개별실체들이 종합을 이루는 한 과정의 구성요소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설명 전략이다. 다시 말해 그것은 분산된 일련의 사건에서 어떤 통합된 실체가 등장하고 구체화되는 방식으로 서사의 설명을 구조화하려는 것이다. 유기론적 논증방식을 동원하는 서사는 ‘역사현장’에서 진행되는 모든 통합과정의 지향점과 목표를 보여주고자 하며, 그에 따라 특정 목표를 향한 통합의 과정을 지배하는 ‘원리’, ‘이념’, 혹은 ‘정신’의 존재를 밝히고자 한다. 따라서 세계사를 ‘자유정신의 구현과정’으로 파악한 헤겔은 유기론적 모델에 입각한 역사적 설명의 대표적인 경우라 할 것이다.

기계론적 논증의 모델은 ‘역사현장’의 분산적 측면이 아니라 통합적 측면에 관심을 보인다는 점에서 유기론적 모델과 유사하다. 그러나 기계론적 논증의 경우 유기론적 논증과는 달리 ‘역사현장’의 구조가 종합적(synthetic)이 아니라 환원적(reductive) 성격을 띤다. 다시 말해 유기론적 논증에서는 ‘역사현

9) 화이트가 사용하는 ‘역사 현장’이란 용어는 역사가의 연구 대상이지만 아직 역사가에 의해 처리되지 않은, 다시 말해 분석과 서술 이전의 상태에 있는, 역사전개의 한 과정 혹은 영역을 의미한다. (*Metahistory*, pp. 14-15, note 8)

장'에 등장하는 개별 실체 각각이 전체의 일부로서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하나의 종합을 이루지만, 기계론적 논증에서는 보편적인 인과법칙의 한 부분으로서 기계적으로 환원된다. 결국 기계론적 논증은 원인과 결과라는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을 통해 '역사현장'을 조직하려는 전략인 것이다. 화이트는 이러한 기계론적 논증에 의한 역사적 설명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마르크스의 유물론을 들고 있다.

컨텍스트적 논증방식의 핵심은 한 마디로 말해 역사적 사건은 그 컨텍스트, 곧 발생 맥락을 파악할 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모델은 형식주의 모델의 분산적 경향과 유기론적 혹은 기계론적 모델의 통합적 경향이 혼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컨텍스트적 설명에서는 '역사현장'의 실체들은 여전히 분산되어 있으면서도, 소위 '총괄(colligation)'의 방법을 통해 '적당하게', '잠정적으로' 통합된 상태에 있다. 다시 말해 컨텍스트적 방식은 한편으로 '역사현장'의 구체성과 사실성에 유의하며 유기적, 기계적 모델의 추상화 경향을 피한다.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개별 실체의 특수성과 고유성 대신에 그들 사이에 존재하는 기능적 상호관계에 주목한다. 그러나 컨텍스트적 논증에서 이 상호관계는 매우 추상화된, 목적론적 일반원리나 보편적 인과법칙과는 다르다. 그것은 오히려 일정하게 한정된, 한 시기나 한 시대의 특징적 '경향'이나 '추세'에 해당한다. 결국 컨텍스트적 논증은 '역사현장'의 실체들이 모두 동일한 맥락 안에 있으며 '분위기'를 공유한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그 성격을 특징짓고 그 의미를 전달하려는 설명 방식이라 할 수 있다. 화이트는 역사적 논증에 대한 컨텍스트적 접근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부르크하르트(J. Burkhart)를 들고 있다. 부르크하르트는 『이탈리아 르네상스 문화』에서 르네상스 문화의 특징이나 의미와 관련하여 인과론적 혹은 목적론적 설명을 배격하고 15~16세기의 시대적 맥락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화이트는 플롯구성, 논증에 이어 역사적 설명의 또 다른 차원으로서 이데올로기를 지적한다. 역사가는 자신이 서술하는 역사의 의미를 플롯, 논증과 더불어 서사가 함축하는 이데올로기적 의미를 통해 설명한다는 것이다. 화이트에 따르면 역사적 서사의 이데올로기적 측면은 역사적 지식의 본질과 역사연

구의 현재적 의미에 대해 역사가가 취하는 입장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모든 역사서술은 이데올로기의 요소를 피할 수 없다. 화이트는 역사연구에서 일체의 이데올로기를 배격하는 입장도 그 자체가 이데올로기적인 것이라고 본다. 화이트는 만하임(K. Mannheim)의 이데올로기론을 수용하여 역사가가 취하는 이데올로기의 유형으로서 보수주의(Conservatism), 자유주의(Liberalism), 급진주의(Radicalism), 무정부주의(Anarchism)를 들고 있다. 화이트가 제시하는 이 네 유형의 이데올로기는 구체적인 정치적 내용보다는 사회현실에 대한 인식이나 유토피아에 대한 관념 등과 관련된 일반적 성향과 선호도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現狀에 대한 변화를 가장 기피하는 보수주의는 가장 사회 호응적인(socially congruent) 반면 변화에 가장 적극적이고 낙관적인 무정부주의는 가장 사회 초월적(socially transcendent)이다. 이에 비해 자유주의는 현상의 개혁을, 급진주의는 현상의 혁신을 지향하면서 양극단의 중간에 위치한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화이트에 따르면 역사가가 서술하는 역사의 의미는 역사가가 선택하는, 세 가지 차원에서의 설명전략, 즉 미학적 차원에서 플롯, 인식론적 차원에서 논증, 윤리적 차원에서 이데올로기의 선택을 통해 결정된다. 그런데 역사적 설명의 각 차원에 다시 각각 네 가지 유형의 모델이 있음을 고려하면 이 모델들 사이의 다양한 조합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즉 역사가가 순전히 개인적 취향에 따라 역사적 설명전략을 자의적으로 선택하고, 그리하여 설명모델 사이의 조합의 가능성이 허용하는 만큼의 다양한 역사해석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화이트는 이러한 가능성을 부인한다.

우선 화이트는 역사가의 역사서술에는 네 가지 설명전략이 일정하게 조합을 이루며 반복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한다. 달리 말하면 플롯, 논증, 이데올로기 차원의 각 네 유형의 설명모델은 서로 구조적 상응관계(homology)에 있으며, 이에 따라 상호간 '선택적 친화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선택적 친화성은 역사적 설명양식이 역사가 개인에 따라 필연적으로 하나의 고정 패턴을 이루게 됨을 뜻하지는 않지만,¹⁰⁾ 역사해석이 역사가 개인이나 학파 혹은

10) 화이트는 고전적인 역사 大作에는 플롯, 논증, 이데올로기의 세 설명 양식 사

세대에 따라 달라지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플롯구성, 논증, 이데올로기적 입장 사이의 선택적 친화성의 문제는 화이트의 서사이론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화이트의 서사이론에서 핵심이라 할 수 있는 修辭法論(tropology)은 바로 이 문제에 대한 논의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그의 서사이론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기도 한 수사법 이론은 대강 다음과 같다.¹¹⁾

화이트는 역사가의 설명과 해석이 미학적, 인식론적, 윤리적 차원에서 상호 관련성을 갖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보고 그것을 역사가의 '심층의식'에서 찾는다. 그는 설명전략의 선택보다 더 근본적인 수준에서 작동하는 이 심층의식의 역할을 밝히기 위해 역사가의 작업에서 '설명 이전'의 단계에 주목한다. 화이트에 따르면 역사가는 자신의 역사서술에서 그가 서술하고자 하는 대상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하나의 연구주제로서 그 대상이 무엇이고 어떤 것인지 파악해야 한다. 즉 역사가는 역사서술의 대상으로서 '역사현장'을 개념적으로 분석하고 설명하기에 앞서 우선 그것을 정신적인 지각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역사가가 다루는 대상은 실험과 관찰이

이에 갈등과 긴장이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한다. 예컨대 미술레는 프랑스혁명의 서술에서 로망스의 플롯과 형태론적 논증이 함의하는 바와는 달리 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선택하였고, 부르크하르트는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서술에서 풍자의 플롯과 컨텍스트 논증의 이데올로기적 함의와는 다른 보수주의의 입장을 취하였다. 또 『미국의 민주주의(Democracy in America)』에 나타난 토크빌의 자유주의는 비극적 플롯과 기계론적 논증에 상응하지 않았고 『구 제도(The Old Regime)』의 전면에 등장한 보수주의는 풍자의 플롯, 컨텍스트적 논증전략에 부합하지 않았다. 화이트는 토크빌의 경우처럼 설명전략의 선택에서 긴장과 갈등을 보이거나 초기와 후기 저술 사이에 설명양식에서 변화를 보여주는 역사가, 예를 들면 미술레, 마르크스, 크로체 등을 높이 평가한다. 그들은 역사에 대한 고찰에서 대안적 해석전략의 가능성에 대한 뛰어난 감수성을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반면 그는 랑케처럼 그런 감수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일생을 통해 고정된 해석전략을 다듬는 데 그친 역사가를 “교조적(doctrinaire)”이라 평가한다. (*Metahistory*, pp. 29-30; *Tropics*, pp. 70-71)

11) 아래 서술에 대해서는 *Metahistory*, pp. 31-38; *Tropics*, pp. 71-75 참조.

불가능하며 근본적으로 직접적인 방식으로는 지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화이트는 역사가가 ‘역사현장’을 지각의 대상으로 구성하는 이 의식 혹은 행위의 본질을 ‘詩的(poetic)’인 것으로 본다. 다시 말해 설명과 해석에 앞서 우선 ‘역사현장’을 인식하려는 역사가의 의식은 개념과 논리에 앞선 상상력의 차원에 속한다는 것이다.

화이트에 따르면 역사서술의 주제를 구성하는 행위가 시적인 것은 그 행위가 바로 언어로 이뤄지고, 나아가 그 언어가 필연적으로 비유적(figurative) 성격을 띠기 때문이다. 여기서 화이트는 역사 연구가 과학과 달리 독자적인 전문기술언어 대신 일상언어에 의존한다는 점을 환기시킨다.¹²⁾ 그리고 그는 역사가가 자기 연구의 주제를 지각 가능한 서술 대상으로 기술할 때 일상어를 사용하는 한, 그 언어는 비유적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그렇지 않고는 역사의 경우 본질적으로 낯설고, 궁극적으로 알 수 없는 대상을 익숙하고 이해 가능한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다시 말해 역사가 과학이 아니라 일상의 언어를 사용하는 한 전문기술어와 다른 일상어의 속성상 낯선 인식대상의 존재를 직접적으로 기술할 수 없고, 단지 간접적인 방식, 즉 익숙한 것을 聯想하도록 하는 비유적인 방법이 유일하다는 것이다.

이 언어의 비유적 용법이 수사법(trope)¹³⁾이다. 화이트는 비코(G. Vico) 등

12) 예컨대 수학에는 비례, 함수, 집합 등, 물리학에서는 마찰, 중력, 화학에서는 승화, 응고, 비등 등의 기술적 용어가 사물을 직접적으로 서술할 수 있지만 역사에서 혁명이란 용어를 가지고 특정현상의 본질을 직접적으로 기술할 수는 없다.

13) 수사법이란 ‘바꾸다(turn)’라는 의미의 그리스 어원(tropos)이 시사하듯이 대상에 대한 記述을 전환하거나 조정하는 방법이다. 즉 기술하는 사건이나 인물을 다른 시각에서 보고, 동일한 한 가지 의미가 아니라 다른 의미, 경우에 따라서는 다양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표현하는 수사적 기법인 것이다. 수사법은 “정상”일 경우 기대되는 것에서 변이를 추구하거나, “정상적”으로는 관련이 없거나 혹은 다른 방식으로 관련된 것을 연상하는 방식으로 의미를 표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관습이나 논리가 허용하지 않는, 일종의 비정상과 일탈에 해당하는 언어용례라고 할 수 있다. 고전 라틴어(tropus)에서 “비유

르네상스 이후 서양 수사학의 전통과 특히 버크(K. Burke)의 현대 수사학 이론을 수용하여 은유(Metaphor), 환유(Metonymy), 제유(Synecdoche), 반어(Irony) 등 네 가지 비유법을 핵심 수사법으로 제시한다. 은유는 사물 사이의 관계를 명시적으로는 유사함, 그리고 묵시적으로는 다름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으로서 ‘갈아타기(transfer)’라는 말뜻 그대로 특정 사물의 의미를 다른 것과의 동등성과 동일성의 측면에서 표현하는 비유법이다. 그러나 은유에서 사물은 비유되는 대상과 동일시되지만 그것으로 환원되거나 통합되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 은유를 통해 표현되는 사물은 비유 대상의 속성을 공유할 뿐 자신의 특수성은 그대로 보존한다.

‘이름 바꾸기(name change)’라는 뜻의 환유는 부분의 이름으로 사물 전체의 이름을 대신하는 경우이다. 이는 환유가 사물과 그 비유대상의 차이를 인식하고 구분함과 동시에 그 가운데 하나를 다른 하나의 표현으로 이해하는 비유법임을 의미한다. 즉 환유는 비유관계의 사물을 부분과 부분, 즉 전체를 나타내는 부분과 전체에 부속된 부분 사이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인식하고, 행위 주체와 행위, 원인과 결과 등의 관계처럼 그 중 한 부분을 다른 부분의 기능 혹은 외관의 지위로 환원하는 것이다.

제유는 부분을 이용하여 전체에 내재한 것으로 보이는 어떤 속성을 상징하는 비유법이다. 제유도 환유와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두 사물을 비유하지만, 제유 관계의 두 사물은 더 이상 부분과 부분의 관계가 아니다. 제유에서 사물과 그 비유대상의 관계는 동일한 질과 속성을 가진 대우주와 소우주의 관계이다. 즉 제유는 전체의 작은 복사물로서 전체 내 통합을 이루는 사물의 관계를 비유하는 수사법이다.

반어법은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 축자적(literal) 차원에서 긍정적인 것을 비유적 차원에서는 부정함으로써 그 의미를 특징짓는 경우나 혹은 그 반대의 경우

(metaphor)”나 “비유법(figure of speech)”의 뜻으로 사용된 이 용어는 근대 초 영어에서는 “스타일”, 즉 순수 논리적 증명이나 순수 픽션과는 구분되는 산문 담론의 언어적 구성 방식을 가리킨다. (White, *Tropics*, pp. 2-3)

를 가리키는 비유법이다. 이 반어의 수사법은 일종의 ‘메타수사법(metatropé)’이라고 할만큼 은유, 환유, 제유 등 다른 세 가지 비유법에 비해 비유에 대한 自意識이 고도로 발달한 수사법이다. 즉 그것은 사물을 표현하는 데 언어가 지닌 본질적 한계 내지 문제점을 통찰하고, 비유언어의 오용 가능성을 자각할 수 있는 의식의 단계를 의미한다. 따라서 반어의 비유법을 구사하는 사고와 의식은 언어에 의한 사물인식에 대해 회의적이고 자기 비판적인 경향을 띠게 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수사법에 관한 화이트의 논의를 처음 대하는 사람은 다소 엉뚱하다는 인상을 받기 쉽다. 특히 수사학이나 문학이론에 어두운 경우 이해가 쉽지 않고, 나아가 도대체 그런 수사법이 역사연구와 어떻게 관련이 되다는 것인지 의문을 품을 수도 있다. 그러나 화이트는 수사법 없이 역사서술은 불가능하고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보고, 그것을 서사담론으로서 역사의 “혼(soul)”이며, 역사가 아무리 회피하려 해도 결코 회피할 수 없는 마치 “그림자”와 같은 것이라고 표현한다.¹⁴⁾ 수사법을 역사의 精髓라고 보는 화이트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서술에서 수사법이 차지하는 기능과 역할을 알아야 한다.

이미 지적한 것처럼 화이트에 따르면 역사가가 낯설고 직접적으로 지각할 수 없는 대상을 이해와 설명이 가능한 것으로 만드는 것은 그가 자신의 연구 주제로서 그 대상을 기술하는 데 사용하는 언어의 비유적 연상작용 때문이다. 그런데 화이트는 이 언어의 비유적 연상작용, 곧 수사법의 기능이 단지 연구 주제를 특징짓는 記述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역사서술의 다음 단계에 해당하는, 대상에 대한 의미부여, 즉 설명과 해석의 방식을 미리 규정한다고 본다. 즉 화이트에 따르면 역사서술에서 수사법은 서술대상이 어떤 것인지 미리 상상하고 설명과 해석을 위해 플롯과 논증, 이데올로기의 차원에서 어떤 전략을 선택해야 하는지 미리 보여주는 ‘豫示的(prefigurative)’ 기능을 수행한다.

수사법의 예시적 기능은 두말할 나위 없이 앞서 언급한 핵심 수사법들이 모

14) White, *Tropics*, p. 2.

두 사물의 관계를 독특한 형식으로, 예컨대 은유는 표상적(representational), 환유는 환원론적(reductionist), 제유는 통합적(integrative), 반어는 반론적(negational) 형식으로 각각 形象化(figure) 하는 데에서 비롯된다. 그리하여 화이트에 따르면 역사가가 연구 주제인 '역사현장'을 처음 기술할 때, 그는 이 수사법의 비유적 언어를 통해 이미 그것에 구조적 형상을 부여하고, 아울러 그것에 적용할, 곧 그 형상의 분석과 의미부여에 적합한 설명양식을 적어도 묵시적으로 미리 결정함으로써 서사형식의 조리와 일관성을 확보한다. 예를 들면 은유에는 로망스의 플롯과 형태론적 논증, 환유에는 비극적 플롯과 기계론적 논증, 제유에는 유기론적 논증과 희극적 플롯, 반어의 수사법에는 풍자의 플롯구성과 컨텍스트적 논증양식이 각각 뒤따르게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역사가가 주제를 기술할 때 사용하는 비유적 언어가 역사서술에서 선택 가능한 플롯과 논증 양식의 범위를 미리 제한한다는 점에서 모든 역사서술에서 要諦는 수사법이라고 할 수 있다. '역사현장'을 비유적 언어로 형상화하고 플롯과 논증의 설명양식을 결정하는 수사법의 예시적 기능을 고려하면 화이트의 서사이론은 결국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서사형식의 역사서술은 역사가가 그의 의식에서 미리 상상하고 그려내는 '역사현장'의 형상을 미학적, 인지적, 윤리적 차원에서 개념화한 것이다.

III.

역사란 사실을 탐구하는 학문이라는 생각은 19세기이래 역사학이 추구해왔던 자기인식과 정체성의 핵심이다. 역사가가 역사서술을 통해 밝혀야 할 것은 과거가 실제 어떠하였는가하는 물음이고, 종종 그 의미는 좀 다르더라도 '과학적'인 방법으로 그런 물음에 대해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답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 역사가들의 일반적인 통념이다. 화이트의 서사이론은 역사학의 이러한 자기인식과 통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와 비판의 의미를 지닌다.

화이트는 자신의 서사이론을 가리켜 ‘역사시학(historical poetics)’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역사서술의 문학적 성격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다. 화이트에게 역사의 문학적 측면은 문체와 작문 스타일 등 수사적이고 수식적인 요소에 국한되지 않는다. 화이트가 강조하는 역사의 문학적성은 본질적인 것이다. 즉 수사법의 예시적 기능이 의미하듯 역사는 근본적으로 역사가의 시적 상상력과 비유적 언어에 의존한 문학적 창조과정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역사의 문학적 성격은 역사가가 자신의 연구 주제를 식별하는 순간에 이미 시작되는 것으로서 역사가가 주제에서 영감을 얻어 이야기의 플롯을 구상하는 과정이야말로 역사의 문학적성을 가장 잘 보여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화이트는 사실과 허구라는 잣대로 역사와 픽션을 이항 대립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한다. 화이트에 따르면 서사의 형식을 취하는 한 역사는 불가피하게 픽션의 성격을 띠게 된다. 서사형식에 대한 화이트의 분석은 이야기와 플롯구조에서 서사와 픽션의 형식이 그대로 일치함을 잘 보여준다. 픽션의 형식을 빌지 않고 역사를 서사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다. 물론 화이트는 역사가가 다루고자하는 역사적 사건은 실재하는(real) 것으로서 픽션의 가상적인(imaginary) 사건과는 다르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그는 그것이 역사와 픽션을 구분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역설한다. 이미 살폈듯이 역사서술의 대상은 역사가의 비유적 언어를 통해 비로소 지각 가능한 것으로 형상화된다는 점에서 역사가에 의해 ‘구성되기(construct)’ 때문이다.

화이트는 역사서술의 대상 자체가 역사가에 의해 ‘창안되며(invent)’, 따라서 역사는 픽션과 다름없다는 점을 뒷받침하기 위해 역사적 ‘사건(event)’과 ‘사실(fact)’을 구분한다. 화이트에 따르면 역사적 사건은 물질적인 것으로 기록이나 기억 이전에 실제로 존재하는 하나의 실재(reality)인 반면 역사적 사실은 사건에 대한 하나의 ‘言明(statement)’이다. 역사적 사건은 역사가에게 이미 주어진 것이며 창안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은 다르다. 그것은 주어지거나 기록 속에서 이미 사실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을 바탕으로 역사가가 구성하고 만드는 것이다. 화이트에게 사실이란 바르트(R. Barthes)

의 지적대로 “오직 언어상의 존재(only a linguistic existence)”이며 단토(A. Danto)의 표현대로 역사가가 “記述 중인 사건(event under description)”인 것이다.¹⁵⁾ 화이트에 따르면 역사적 사건과 사실의 관계는 역사가에게 열려 있고 매우 불안정하다. ‘콘라드 아데나워(Konrad Adenauer)는 1949년 9월 15일 서독의 초대 수상으로 선출되었다’와 같은 가장 기본적이고 단순한 사실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사건과 사실이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는 별로 없으며, 역사적 사실은 항상 수정과 재해석, 심지어 폐기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화이트에 따르면 역사적 사실이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이라면 사실 역사는 불가능하다. 과거에 발생한 특정 사건이 역사적 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두 개의 엇갈린 진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역사가가 실제 무엇이 일어났는가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역사적 사실이 역사가의 해석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가의 관심과 해석이 역사적 사실을 좌우하는 것이다.¹⁶⁾

따라서 화이트에 따르면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역사적 실재를 복원한다는 의미에서 역사를 재구성할 수 있다는 믿음은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역사적 사건과 사실 사이의 관계처럼 역사가가 구성하는 역사는 역사적 실재를 직접적으로 ‘가리키거나(refer)’ 그것과 ‘일치하지(correspond)’ 않는다. 화이트에게 역사란 조각난 그림을 하나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역사가가 팔레트에서 색을 선택해 스스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달리 표현하면 역사를 서술한다는 것은 대상을 실제대로 정확하게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법의 비유언어처럼 대상의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것이다.¹⁷⁾

픽션으로서 역사의 성격을 논의하면서 화이트가 특히 강조하는 것은 서사에 내포된 ‘상징’과 ‘알레고리’의 성격이다. 화이트에 따르면 서사란 과거를

15) White, “An Old Question Raised Again: Is Historiography Art or Science? (Response to Iggers)”, in *Rethinking History*, vol. 4(2000), No. 3, pp. 398–399.

16) White, *Content*, p. 20.

17) A. Munslow, *Deconstructing History* (Routledge: London & New York, 1997), p. 148.

나타내는 ‘부호(sign)’ 나 ‘표식(icon)’ 이 아니다. 역사가는 지나간 과거를 더 이상 직접적으로 지각할 수 없고, 따라서 하나의 분명한 표상을 통해 그 실체를 나타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화이트에게 서사란 오히려 직접 대상을 표상하지는 않지만 대상의 이미지를 불러일으키는 ‘상징(symbol)’ 이나 ‘은유(metaphor)’ 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서사란 역사가가 낯설고, 알 수 없는 과거에 익숙한 비유적 이미지를 부여하고, 그를 통해서 서사의 독자들에게 그 과거가 어떤 것이고, 또 그 의미가 무엇인지 찾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서사가 제공하는 것은 과거 그 자체가 아니라 과거를 이해하는 하나의 열쇠인 셈이다.

그런데 서사의 독자가 서사를 이해하는 것은 역사가가 제공하는 열쇠, 혹은 상징, 비유가 서사의 독자들에게 익숙하고 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신화, 민담, 우화 등 그 시대의 문화적 자산으로서 그들에게 잘 알려진 ‘원형적 플롯구조’ 와 이야기 양식 등이 바로 그런 것이다. 따라서 서사는 과거의 역사적 사건과 현재의 ‘원형적 이야기’ 사이를 중재하는 것이고 그들 사이에 유사성이 있음을 비유적으로 시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서사의 독자들은 서사가 취하는, 소설과 유사한 픽션의 형식, 즉 현재 사람들의 삶의 경험에 문화적 의미를 부여하는 ‘원형적 플롯구조’ 를 이해함으로써 서사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다. 결국 서사란 과거와 관련하여 역사가가 전달하는 하나의 ‘메시지’ 이며 이 메시지는 알레고리의 성격을 띠다고 할 수 있다. 역사가가 서사를 통해 전달하는 메시지는 표면적으로는 과거의 문제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裏面的으로는, 즉 비유와 상징의 방법을 통해서 현재 혹은 미래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다.¹⁸⁾

서사의 상징성과 알레고리성은 역사의 의미나 본질에 관해 여러 가지 점을 시사한다. 서사는 그것을 구성하는 개별 사실들이 의미하는 바와 더불어 하나의 완결된 이야기로서 별도의 의미를 갖는데, 이 서사의 이차적인 의미가 바로 알레고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역사는 하나의 ‘계단’ 혹은 ‘망루’

18) White, *Tropics*, pp. 88-91, 133-4.

에 비유할 수 있다. 계단이나 망루는 그것이 자리잡은 일정한 공간은 물론이고 그 너머 또 다른 광경을 볼 수 있게 해준다. 역사가가 서술하는 역사에는 개별 역사적 사실로 환원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독특한 의미가 반드시 담겨있다는 뜻이다.

아울러 서사가 내포한 알레고리적 성격은 역사적 사실의 객관적 재구성을 내세워 역사의 가치 중립성을 주장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뜻한다. 알레고리란 두말할 나위 없이 그것이 서술하고 있는 이야기에 도덕적, 윤리적 의미를 부여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화이트는 역사란 역사적 사실에서 논리적 추리를 통해 도달한 ‘결론(conclusion)’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픽션으로 전위(displacement)하기 위해 내린 도덕적 ‘판단(judgment)’의 산물이라고 주장한다.¹⁹⁾

역사의 상징성과 알레고리성을 강조하는 화이트의 주장에는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다. 서사는 역사가가 역사적 사실에 부여하는 것이지, 역사적 사실 자체에 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이 점은 사실 역사에 관한 화이트의 논의에서 출발점의 의미를 가지며, 만약 이 전제에 문제가 있다면 그의 역사론은 전체적으로 설득력을 잃는다. 화이트는 이를 잘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묻고 있다.

정말 세상이 핵심 주제, 원래의 시작, 중간, 끝 그리고 하나의 일관성을 갖춘, 잘 만들어진 이야기 형태로 나타나 지각하도록 하는가? 아니면 연보나 연대기가 시사하는 형태, 즉 시작이나 끝이 없는 단순한 연속 혹은 시간상 종료될 뿐 결코 결말에 이르지 않는, 그런 시작의 연속으로 나타나는가? 그리고 정말 세상이, 심지어 사회조차도 이미 서사가 되어, 과학적으로 그것을 이해하는 우리 능력의 지평 너머에서 이미 “스스로 말하며” 우리에게 오는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사회적 현실에 대한 관념의 존재에 필수적인 도덕적 권위를 위하여 스스로 말하고, 어떤 한 형태의 이야기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세상에 대한 픽션이 필요한 것인가?²⁰⁾

19) White, *Content*, pp. 46-7.

화이트는 중세 초 역사기록의 형태였던 연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에 대한 답을 제시한다. 화이트는 연보에 시간의 흐름을 표시하는 年代를 제외하고는 사건의 기록에는 어떤 일관성과 질서도 없으며, 심지어 많은 부분이 공백으로 남은 점을 주목한다. 화이트에게는 연보야말로 사건이 스스로 말할 수 있다거나 스스로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으로 서술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작위적임을 증명한다. 특히 화이트는 서사형식을 갖추지 못한 연보가 역사기록의 지배적인 형태로 등장한 시기가 사회적 혼란과 무질서의 시기였음을 주목하고 서사라는 역사서술 형식이 나타나는 사회적 배경과 서사의 사회적 기능을 밝힌다. 화이트에 따르면 서사는 법과 사회제도, 사회의 중심으로서 권력의 출현, 그리고 그에 따른 합법성과 정통성, 권위의 문제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전제로 한다. 다시 말해 혼란과 무질서로 나타나는 실재(reality)에 특별한 일관성과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충동, 혹은 실재에 서사성을 부여하여 역사로 만들고 싶은 욕망의 이면에는 법과 제도를 유지하고 권력과 질서를 정당화해야 할 필요가 작용하였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권력을 둘러싼 이해관계, 그에 대한 위협 등을 의식할 때 비로소 사회적 긴장, 갈등, 투쟁 등을 서사의 구성 요소로서 인식할 가능성이 생긴다는 것이다.²¹⁾

화이트에 따르면 서사란 실재가 상상적인 삶에서나 가능한 일관성, 진실성, 완결성을 보여주기 바라는 욕망의 산물이다. 현재 혹은 미래와 관련된 희망, 꿈, 욕구가 없다면 실재의 사건이 상상의 사건의 이야기가 보여주는 형식적 속성을 갖는다는 생각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화이트는 서사란 실재에 도덕성을 부여하려는 충동과 결부되고, 모든 서사에는 반드시 도덕의 원천인 사회질서와 관련하여 교훈을 주고 교화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확신한다. 그는 만약 도덕적 충동과 목적이 없다면 실재는 발생할 뿐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다시 말해 역사가의 서술이 연보나 연대기처럼 계속 이어지지 않고 서사라는 하나로 종결된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은 도덕적 판단 때

20) White, *Tropics*, pp. 24-5.

21) White, *Content*, pp. 11-14.

문이라는 것이다.

화이트에 의하면 서사가 내포한 도덕적 윤리적 의미와 알레고리의 요소는 19세기 근대 역사학이 출현하기 전까지는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18세기까지 역사는 정치적, 도덕적 규범과 교훈의 원천이요 寶庫로 여겼다. 수사와 작문을 제외하고 역사연구에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었던 만큼 역사는 아직 직업적 학자가 아니라 대부분 아마추어의 활동영역이었다. 역사연구의 목적과 효용도 교양과 식견을 넓히거나, 정치적 행위와 신념을 정당화하거나, 종교적 믿음을 옹호하는 등 다양하였다. 이처럼 역사연구가 수사학과 밀접하고 그 효용도 다양한 만큼 '역사현장' 자체는 혼란스럽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거나, 적어도 수사적 재능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는 수많은 다양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생각할 가능성이 있었다.

화이트에 따르면 19세기 근대역사학의 등장, 즉 역사의 학문화는 바로 이런 가능성에 대한 대응이었다. 즉 19세기에 접어들어 역사를 전문적인 학문의 영역으로 정립하려던 노력의 배경에는 지금까지 역사를 둘러싸고 정치적, 종교적 입장이 대립하고, 역사에 대한 거대담론으로서 역사철학이 경쟁하며, 역사에 호소하는 유토피아적 비전과 이데올로기가 각축을 벌이는 상황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고 역사를 학문의 영역으로 만들기 위해 지향해야 할 목표는 분명하였다. 과거가 '원래 어떠하였는가' 하는 물음이 그것을 압축적으로 표현하였다. 달리 말해 역사는 '과거의 파수꾼', '리얼리즘의 수호자'가 되어야 하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형이상학적인' 역사철학에서 '경험적인' 역사를 구분해야 하였다. 역사는 더 이상 전 역사과정의 비밀을 푸는 열쇠를 발견하고, 미래를 예언하며, 현재 무엇이 필요하고 최선인지 규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제 과거의 일정영역을 대상으로 역사적 사실을 발견하고 그를 바탕으로 과거를 '있었던 그대로' 재구성하고 복원하는 것이 되었다. 그리고 과거의 복원을 위해서 객관성, 진실성, 사실성이 역사연구의 금과옥조가 되었으며 역사연구를 위한 별도의 전문적 훈련과 규율, 제도가 부과되었다.

역사가 학문화되면서 형이상학과 경험주의가 대립하였을 뿐 아니라 유토피

아 의식과 역사의식이 대립하게 되었다. 역사는 이상주의가 아니라 현실주의의 대변자가 되었으며, 더 이상 정치적 당파나 종교적 종파의 증인이 아니라 상호 경쟁하는 그들 사이에 중재자가 되고자 하였다. 특히 유토피아 의식과 대비되는 역사의식은 화이트가 ‘脫修辭化(de-rhetoricization)’ 라고 부르는, 역사적 사고에 대한 ‘규제’를 의미하였다. 화이트가 지적하는 탈수사화는 무엇보다도 역사를 픽션, 특히 로망스나 소설류의 산문과 엄격히 구분하려는 경향이다. 다시 말해 이제 역사가가 서술하는 이야기는 역사가가 창안한 것이 아니라 엄격한 원칙에 따라 검토한 기록, 즉 증거를 통해서 발견한 것임을 강조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서사라는 이야기 형식은 단지 진부한 수사학적인 표현으로만 여기게 되었다. 형식적 측면에서의 변화는 내용의 변화도 동반하였다. 기적, 異蹟, 불가사의 등 종교적 믿음과 종교의식의 대상이거나 소극, 풍자, 비방의 소재가 되는 ‘괴이한’ 사건 등은 역사에서 배제되었다. 결과적으로 역사적 사건은 상식적으로 이해 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되어 ‘특별한’ 것이 되었다.²²⁾

화이트는 역사의 학문화, 직업화가 가져온 변화를 ‘역사적 상상력의 억제’라는 말로 압축적으로 표현한다. 그런데 화이트는 이 상상력의 억제가 18세기 후반 미학 분야에도 나타남을 주목한다. ‘아름다움(the beautiful)’과 ‘숭고함(the sublime)’에 관한 논의가 그것이다. 18세기 독일의 철학자 쉴러(J.F. Schiller)는 역사의 스펙터클, 즉 엄청난 고통과 불행, 재앙을 수반한 혼란, 무질서, 도덕적 부정부상태를 인식하고 이에서 형언할 수 없는 놀라움과 두려움, 경외감, 즉 ‘숭고함’의 미학을 발견하였다. 쉴러에게 ‘숭고함’은 ‘아름다움’에 비해 조금도 뒤떨어지지 않는 미학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숭고함’의 미학은 점차 ‘아름다움’의 미학으로 대체된다. 헤겔은 비판주의와 무기력이라는, ‘숭고함’의 미학이 내포한 위험을 인식하고 그것을 배제하고 ‘아름다움’과 합리성을 미학 본연의 대상으로 삼았다.²³⁾

22) White, *Content*, pp. 65–66.

23) White, *Content*, pp. 68–73.

화이트에 따르면 전문적이고 아카데미한 근대 역사학의 성립은 ‘아름다움’의 미학을 역사에 적용한 것이다. 근대역사학과 함께 이제 역사는 설명할 수 없는 장엄한 스펙터클이 아니라 질서 있게 진행되고 이해 가능한 과정이 되었으며, 이성과 미학적 감수성에 의해 투명하게 인식할 수 있었다. 역사기록상의 혼란도 표면적인 것으로 치부하고 자료의 공백이나 자료 처리상의 오류의 탓으로 돌렸다. 무엇보다도 제도화된 역사학의 규범을 따르지 않고 실재를 다루는 특별한 방식을 금지하였다. 특히 과거의 실재에 관한 역사가의 상상력은 위험한 것이 되었고, 따라서 억누르고 길들여야 할 대상이 되었다. ‘숭고함’의 미학이 배제된 역사는 역사의 질서와 ‘아름다움’을 부각시킴으로써 급진정치에 대한 비전을 억압하고 현상유지에 기여하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²⁴⁾

화이트는 아직도 대학 중심의 직업적 역사연구에는 ‘아름다움’의 미학, 상상력의 역제가 확고한 전통으로 남아 있다고 보고 이를 비판한다. 화이트에 따르면 오늘날에도 역사학은 관습과 전통이 지배하는 수공업 같은 분야이다. 역사연구는 문서고에서 역사적 사실을 확인하고 역사적 사실에서 실재의 모습을 발견하는 작업, 역사에 고유한 특별한 이론이나 방법론이 없이 일상언어를 통해서 사실을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작업이라는 관념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 특히 역사는 리얼리즘을 추구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픽션을 다루는 문학이나 사변적인 철학과 구분되며, 그리하여 소위 ‘본래의 역사(history proper)’라는 역사 고유의 영역이 있다는 믿음은 절대적이다. 학문으로서 역사는 이데올로기나 유토피아 의식과 결별해야 한다는 주장을 아직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화이트는 통념이 된 이 모든 관념과 인식이 본질적으로 허구이자 환상임을 폭로하고자 한다. ‘메타역사(Metahistory)’는 그 비판을 압축한 표현이다. 화이트에 따르면 역사는 ‘과거에 대한 진술’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과거와 관련하여 역사가가 생각하는 것에 대한 진술’이다. 그 점에서 역사 자체가 아니라,

24) White, *Content*, pp. 65–67.

역사를 ‘넘어선(beyond)’, 혹은 역사 ‘다음(after)’ 이란 의미에서 ‘메타역사’가 있을 뿐 ‘본래의 역사’란 없다. ‘메타역사’와 구분되는,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연구를 지향하는 ‘본래의 역사’라는 역사고유의 영역이 있다는 직업 역사가들의 믿음에는 어떤 인식론적 근거도 없다. 그런 믿음은 단지 역사가 학문화하면서 획득한 직업적 권위, 제도, 전통의 산물로서 제도화된 역사연구에 순응을 강요하고 ‘침입자’를 배제하는 수단일 뿐이다.²⁵⁾

화이트는 ‘본래의 역사’와 ‘메타역사’를 구분하는 것은 역사의 본질을 밝혀주기보다 오히려 그것을 방해한다고 주장한다. 화이트에 따르면 역사가들은 역사철학과 같은 ‘메타역사’를 이데올로기로 규정하고 역사의 영역에서 배제하고자 하지만 ‘본래의 역사’ 역시 본질적으로 이데올로기의 성격을 벗어나기 어렵다. 양자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이데올로기의 요소가 명시적으로 표면화된 역사철학에 비해 역사의 경우 그것이 내면화되어 있을 뿐이다. 그 점에서 역사에 비해 오히려 역사철학이 더 자기 비판적이며 객관적일 수 있다.

화이트는 ‘메타역사’와 구분되는 역사만의 본연의 영역이 따로 있음을 주장하는 역사가들에게 역사란 본질적으로 시적 상상력과 언어적 비유 기능의 산물임을, 도덕적 판단을 바탕으로 한 알레고리임을 강조한다. 화이트에 의하면 역사가들은 역사와 픽션이 서술 대상인 사건의 종류에서는 서로 다르더라도 서사라는 서술의 형식과 기법, 서술 목적과 의도 등에서는 근본적으로 동일하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그들은 수사법을 통해 역사서술에 일관성과 의미를 부여하는 서사의 기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하여 화이트는 ‘형식의 내용(the content of the form)’이라는 역설적인 표현을 통해 역사서술의 내용이 서사라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서사의 형식 자체가 이미 내용을 결정한다는 점을 역설한다.²⁶⁾

그런데 화이트는 역사가가 다루고자하는 역사적 실재에는 어떤 질서도, 어

25) Jenkins, *Conversation*, p. 70; White, “Response to Arthur Marwick”, in *Journal of Contemporary History*, vol. 30(1995) p. 235, 246.

26) White, *Content*, pp.ix-xi.

편 의미도 없다고 생각한다. 화이트에게 역사적 실재의 특징은 오히려 혼란과 무질서, ‘송고함’에 있으며, 따라서 역사가가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한 역사는 본질적으로 ‘의미 없고(meaningless)’,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달리 표현하면 화이트에게 인간의 역사는 시대와 장소를 초월한 보편적인 진리나 규범이 아니라 삶의 허무와 부조리를 보여주는 것일 뿐이다. 그렇다면 역사가는 왜 역사를 연구하는가? 이에 대한 화이트의 답변은 실존주의적 문제의식과 유토피아 의식을 반영한다. 화이트는 허무와 부조리라는 운명 앞에서도 인간의 삶은 자신의 몫이고 스스로의 책임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리하여 화이트는 역사가의 사명은 한 마디로 말해 인간을 ‘역사의 짐(the burden of history)’에서 해방시키는 데 있다고 천명한다. 역사가가 역사연구를 통해 일깨워야 할 것은 과거에 대한 의무나 전통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인간의 선택과 책임의식이라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역사란 변화와 혁신을 가로막는 전통의 굴레가 아니라 미래의 유토피아를 위한 무한한 상상력과 영감의 원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²⁷⁾

IV.

지금까지 살핀 바와 같이 화이트의 역사론은 대학 중심의 전문적 역사연구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을 담고 있다. 따라서 화이트에 대한 역사학계의 반응이 어떨지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처음에는 무관심과 냉담함이 지배적이었던 반면 그의 논의가 점차 영향력을 얻어 가면서 거센 비난과 공격이 두드러졌다. 화이트에 대한 반응과 평가가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데는 서사이론이나 수사법 등 역사가에게는 생소한 그의 이론에 대한 이해의 부족도 한 몫 하였다. 『메타역사』에 대한 초기의 서평은 수사법이란 용어조차 아예 언급을 회피하였으며, 이해하기 어려운 ‘기이한 신조어’의 문제점을 지

27) White, *Tropics*, pp. 28-50.

적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화이트의 서사이론에서 수사법이 갖는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그것은 종종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²⁸⁾

예컨대 서사의 설명과 논증양식을 결정한다는 수사법이 사람들의 상상력과 언어에 내재한 고유한 것인지 아니면 수사학에 대한 교육을 통해 습득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심층 구조적 차원에서 무의식적으로 작용하는지 아니면 역사가가가 의식적으로 선택하는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다.²⁹⁾ 화이트는 수사법이 르네상스 이후 근대 서양에서 지배적이었으며, 역사가가는 자유롭게, 그리고 의식적으로 특정 수사법을 선택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실제 그는 『메타역사』의 말미에서도 자신의 저술은 반어법의 시각에서 서술된 것이며, 그것은 반어법적 사고 자체를 초월, 극복하려는 자의식에서 비롯되었음을 밝히고 있다.³⁰⁾ 그러나 수사법의 선택이 의미하는 사고의 자유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수사법 자체가 오히려 이데올로기적 입장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그럴 경우 서사양식을 결정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수사법의 비유언어가 아니라 이데올로기이며, 그리하여 화이트의 지지자 가운데는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화이트의 서사이론을 재구성하려는 시도도 나오고 있다.³¹⁾

언어의 비유양식과 이데올로기 가운데 어떤 요소가 역사적 사고를 결정하는지는 논리적으로 명백하게 규명하기 어려운 문제인 만큼 논란거리로 남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역사서술을 지배하는 메타역사적 사고의 바탕을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설명과 해석의 방향을 豫示하는 언어적, 시적 이미지에서 찾았다는 점에 바로 화이트의 독창성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화이트의 지지

28) Vann, Reception, pp. 149–52.

29) R. Chartier, “Four Questions for Hayden White”, in idem, *On the Edge of the Cliff: History, Language, and Practic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7), pp. 28–33.

30) *Metahistory*, p. 434.

31) K. Jenkins, On “*What is History?*”. *From Carr and Elton to Rorty and White*, (Routledge: London & New York, 1995) pp. 173–76.

자나 비판자들 역시 대부분 이 점을 잘 인식하고 있는데, 그들이 볼 때 역사에 대한 화이트의 논의에서 핵심은 언어의 중요성에 주목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화이트의 입장을 1980년대 이후 기호학이나 포스트구조주의 언어이론의 영향 아래 구미 역사학계에 등장한 소위 ‘언어로의 전환(linguistic turn)’을 대변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화이트만큼 역사연구와 관련하여 소쉬르 이후 언어학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데 더 힘을 발휘한 사람은 없었다”거나, 화이트에게는 “언어가 실체를 구성하고 해체하는 방식에 대한 예민한 감수성”이 돋보인다는 평가가 그 대표적인 경우이다.³²⁾ 그러나 수사법이론에 나타난 화이트의 입장을 ‘언어로의 전환’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도 화이트 자신이 이를 경계한다. 화이트는 비유 언어가 역사서술의 대상을 특징짓고 설명과 해석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자신의 수사법이론이 언어가 실재를 규정한다는 언어결정론을 의미하지 않음을 역설한다. 화이트에 따르면 자신의 주장은 언어가 역사연구의 대상을 하나의 이미지나 개념으로 고정하는 몇 가지 방식을 제공하며, 역사가는 이 방식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동일한 대상에 대해 상이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일 뿐 언어결정론과는 무관하다. 화이트는 선택적 친화성을 갖는 비유와 설명의 양식이 일정하게 제한되지만 다양한 조합의 가능성이 있으며, 또 그 조합이 논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유추에 의존하는 것임을 강조한다. 결국 화이트의 입장은 언어가 인식대상을 담론의 주제로 변형하는 방식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일 뿐 언어와 실재와의 관계를 새롭게 인식해야 하고 언어에서 역사인식의 새로운 대상을 찾자는 것은 아니다.³³⁾

화이트가 “언어로의 전환”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언어를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기호체계로 보는 언어이론에 대한 입장에서 특히 분명하게 드러난다. 화이트는 실재를 비유적으로 표상하는 언어의 기능을 강조하는 것이

32) Chartier, *Four Questions*, p. 30에서 재인용.

33) H. White, “A Response to Professor Chartier’s Four Questions”, in *Storia della Storiografia*, vol. 27 (1995), pp. 63–4.

언어 외 실재하는 것은 없으며, 실재는 언어로 구성된다는 주장과 결코 동일 시되어서 안 된다는 점을 역설한다. 화이트가 역사적 사건과 사실을 구분하는 데에서 알 수 있듯이 화이트에게 실재는 기록이나 기억 이전에 물질성을 갖고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화이트는 ‘역사적 사실은 오직 언어상의 존재’라는 바르트의 말에 동감하지만, 그것은 역사적 사실이란 사건에 대한 기록을 바탕으로 역사가에 의해 구성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일 뿐 역사적 실재를 부인하거나 실재를 오직 언어적 현상으로 본다는 의미가 아니다. 화이트의 입장을 간단히 표현하면 사건에 부과되는 의미는 무엇이든 언어 안에서, 언어에 의해 생성되지만 사건 자체가 언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³⁴⁾

이처럼 화이트는 언어결정론이란 비판에 맞서 자신의 입장이 실재의 과거, 실재의 사건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지만 그것으로 논란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언어와 실재, 역사적 사실과 사건 등에 관한 화이트의 입장에는 여전히 비판의 여지가 남아 있다. 우선 역사적 사건의 실재성을 인정하는 화이트의 입장에 대해 그것은 역사에 대한 실증주의적 관념, 즉 사건은 역사가의 인식대상으로서 역사가 외부에 따로 존재한다는 믿음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화이트가 종종 사건에 대한 역사적 기록에 대해 ‘가공하지 않은(unprocessed)’이란 용어를 사용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지칭하여 ‘데이터(data)’라고 표현함으로써 역사서술의 대상을 마치 과학의 대상과 동일한 것으로 취급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는 점도 지적된다.³⁵⁾ 그 점에서 화이트에 대한 비판자 가운데 마빅(A. Marwick)처럼 언어로의 전환이라는 새로운 경향을 배척하는 역사가뿐 아니라 라카프라(D. LaCapra)와 같이 그것을 적극 수용하는 사람도 포함된다는 사실은 우연이 아니다.

라카프라가 보기에 역사적 실재에 대한 화이트의 입장은 실증주의적 역사 인식과 ‘언어로의 전환’ 사이에 긴장을 내포하고 있다. 라카프라에 따르면 역

34) White, *Old Question*, pp. 393-95; *Response to Marwick*, pp. 239-40.

35) Vann, *Reception*, p. 113.

사인식에서 언어의 豫示的 표상기능을 강조하는 화이트의 입장에서는 실재란 언제나 언어적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려움에도 이를 억지로 외면하고 ‘언어로의 전환’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라카프라는 화이트가 역사적 기록을 아직 가공하지 않은, “형체를 부여하는 역사가의 정신에 의해서만 생기를 갖는 무력한 대상”으로 취급하는 데 대해 비판을 가한다. 라카프라에 따르면 사건의 기록이란 아무 의미가 없는 ‘죽은 것’ 혹은 ‘공허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텍스트로서 그 자체가 독자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³⁶⁾

화이트가 역사가들에게는 중요한 사료가 될 수 있는 역사적 기록의 성격이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라카프라의 비판은 화이트의 이론에서 가장 큰 취약점 가운데 하나를 지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역사에 대한 경험주의와 실증주의의 관념에 맞서 역사의 픽션적 성격을 강조하는 화이트의 이론은 분명 역사가에 비해 역사적 기록의 역할은 별로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화이트는 역사란 ‘창안과 동시에 발견의 산물’이라는 점을 빼놓지 않고 언급함으로써 픽션으로서 역사의 성격을 강조하는 자신의 입장이 마치 역사를 아무 제약 없이 임의로 서술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그럼에도 화이트에게 역사는 사실을 바탕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가가 서사적으로 ‘구성’하는 것이며 서사의 의미는 오로지 역사가가 부여하는 것일 뿐 역사적 사건 자체에는 어떤 의미도 없다.

그러나 역사적 사건 자체는 의미가 없더라도 사건에 대한 의미 부여가 오직 역사가에 의해서만 이뤄진다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사건에 대한 기록도 이미 가공되어 서사적 구조를 갖출 수 있고, 그를 통해 사건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화이트가 강조하듯이 과거의 삶 자체는 이야기의 형식을 갖지 못하더라도 과거의 삶의 경험을 기록하는 것은 이야기 형식을 갖출 수 있는 것이다. 그럴 경우 먼슬로우(A. Munslow)가 지적하듯이 역사가의 역사서술과 역사적 기록이 서사적으로 상응하는, 즉 과거에 대한 이야기

36) LaCapra, Review on *Tropics of Discourse*, pp. 1042-43.

와 의미부여에서 양자가 일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역사가는 역사적 기록에서 자신의 서사가 과거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기록에 담긴 과거의 인식에 상응하는지 여부는 가려야 할 것이다.³⁷⁾

이처럼 화이트는 역사가의 역사서술과 역사기록 사이의 서사적 상응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상대주의라는, 자신의 이론에 대한 가장 일반적이고, 또 가장 중요한 비판을 초래한다.

헤이든 화이트는 역사를 “픽션 만들기”의 한 형태”로 여김으로써 “과학적” 지식을 확립할 어떤 가능성도 부인하는, 하나의 절대적인(또 매우 위험한) 상대주의의 선봉에 서기로 작정한다. 이런 식으로 무장해제가 되면 역사는 진위를 선택하고, 무엇이 일어났는지 말하고, 허위와 변조를 규탄할 모든 능력을 상실한다 …… 그에게 역사가가 서술하는 역사란 과거의 실재나 분과학문에 적절한 작업방식 어디에도 의존하지 않는다. 수사법적 기반, 플롯양식, 그리고 설명전략에 대한 역사가의 선택은 모두 소설가의 선택과 매우 유사하다 …… 그리하여 역사가(그리고 역사철학자)의 저술을 분류하거나, 혹은 과거 실재에 대해 하나의 설명을 제시하는 목표를 성취하는 능력에 바탕을 두고 그들 사이에 우열을 따지는 것은 완전한 환상이다. 역사가들을 구별하는 유일한 잣대는 서사의 일관성과 완결성이 되든, 혹은 수사법 모델이 제시하는 가능성의 범위나 경쟁적인 서사에 대한 역사가의 자각이 되든 순전히 형식적이고 닫힌 내부적인 것이다.³⁸⁾

화이트는 자신에 대한 이러한 비판이 많은 부분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역사의 픽션적 성격을 강조하는 자신의 입장이 의미하는 바를 명확히 함으로써 그에 대응하려 한다. 우선 그는 역사가 픽션적 성격을 갖는다는 주장이 무엇을 뜻하는지 분명히 하고자한다. 화이트에 따르면 나폴레옹을 심리학이나 의학적 서술의 대상으로 삼는 것과 역사의 등장 인물로 서술하는 것과는

37) Munslow, *Deconstructing*, p. 144.

38) Chartier, *Four Questions*, p. 34.

완전히 다르다. 나폴레옹에 대한 역사서술은 그의 심리나 신체를 분석하는 것과는 달리 그를 특정한 형상(figure)으로 변형시키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화이트는 역사의 픽션화란 근본적으로 “실재의 재료를 담론의 재료로 번역하는 것”일 뿐 사실의 왜곡이나 허구의 문제가 아님을 역설한다.³⁹⁾ 화이트에 따르면 역사의 본질을 픽션으로 간주한다고 해서 실재에 관한 체계적인 지식으로서 역사학의 성격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지적한 것처럼 화이트에게 픽션은 진실과 대비되는 허위가 아니다. 화이트에게는 법적 픽션의 산물이면서도 실재적 존재와 똑같이 기능하는 ‘法人’ 이야말로 픽션의 진실성을 웅변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문학은 창작물이지만 실재에 관한 유용한 지식을 제공하는 것처럼 픽션으로서의 역사 역시 실재에 대한 지식으로서 충분한 가치를 지닌다는 것이다.⁴⁰⁾

화이트는 역사의 픽션적 성격을 주장하는 자신의 입장에 대한 비판의 근거에는 역사학의 정체성과 자기인식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화이트에 따르면 역사학은 과학을 모델로 검증 가능하고, 객관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지식을 추구하고자하며, 역사가들은 ‘과거의 수호자’로서 과거 사실의 중립적이고 충실한 전달자가 되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화이트에게는 리얼리즘을 표방한 역사의 학문화 자체가 역사적 상상력과 ‘숭고함’의 미학을 규제하려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의도를 내포한 것이다. 화이트는 역사의 학문성에 대한 역사가들의 믿음과 자부심, 학문으로서 역사연구를 위해 그들이 바치는 노력과 헌신에 냉소적이다. 그는 문서고를 뒤지고, 典據를 인용하고, 각주를 표기하는 등의 역사가의 작업이 역사적 지식의 과학성과 객관성을 보장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한 작업은 역사가 과학과 유사한 작업 절차를 거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마치 법정의 증언자가 그러하듯이 역사가의 성실성을 과시하려는 儀禮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역사가들이 만약 그러한 절차나 과정이 없다면 과학과는 달리 역사에는 객관성과 진실성이 결

39) White, Response to Chartier, p. 64.

40) White, Old Question, p. 398.

여되는 양 여기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⁴¹⁾ 화이트는 지식의 객관성, 진실성이란 시공을 초월한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생산되는 특정 시대, 특정 사회, 특정 학문공동체에 지배적인 문화적 이상과 결부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화이트에게 역사적 상대주의란 특정 역사서술의 진실성과 가치는 그것이 생산되는 시·공간의 문화적 맥락에서 평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뜻하고, 그것이 바로 자신의 입장이다.

상대주의라는 비판에 대한 화이트의 반박에 수긍할 만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의 이론이 무책임하고 자의적인 역사해석을 조장하며 역사학에 치명적인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근거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홀로코스트, 즉 나치에 의한 유대인 대량학살의 문제는 화이트의 입장이 구체적인 역사해석에 실제 어떻게 관련되며,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다. 화이트는 하나의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도 역사가에 따라 여러 가지 상이한 의미를 부여하는 서사가 가능하다는 자신의 주장을 염두에 두고 홀로코스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자문한다.

당신은 홀로코스트의 발생과 본질이 단지 견해의 문제일 뿐이고 홀로코스트의 역사를 누구든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말을 하려는가? 당신은 그 사건에 대한 어떤 서술도 담론의 관행이 요구하는 일정한 형식에 부응하는 한 유효하며, 희생자들이 겪었던 치욕과 만행에 관해 진실을 말할 책임이 없음을 뜻하는가? 범죄자나 그들의 승배자들이 자신들의 범죄에 대한 서술을 사실상 죄와 책임에서 면제하도록 꾸미는 것을 허용하거나 최악의 경우, 자신들이 범한 범죄는 결코 일어난 적이 없다고 주장하도록 하는 그런 간악함의 어떤 것도 용서치 않는 사건이 있는 것이 아닌가?⁴²⁾

홀로코스트의 해석문제는, 파국적 상대주의를 조장한다고 비판받는 화이트로서는 필연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문제이다. 더구나 홀로코스트 연구와

41) White, Response to Chartier, p. 65.

42) Content, p. 76.

관련해서 강제수용소의 존재와 독가스에 의한 유대인 대량학살의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일단의 ‘수정주의자’들이 있다는 사실은 문제의 중요성을 더해준다. 이론의 일관성이라는 점에서 화이트의 역사론에 일종의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이 문제에 대한 화이트의 입장은 조심스럽고 신중하다.

우선 그는 홀로코스트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수정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도덕적으로 불쾌하고(morally offensive)”, 또 “지적으로 황당한(intellectually bewildering)” 것이라고 명확하게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선을 긋는다.⁴³⁾ 화이트가 동일한 역사적 사건에 대한 여러 상이한 해석과 서술의 가능성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사실에 대해 충실함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전제를 잊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면 화이트의 반응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화이트가 사건과 사실을 구분하고 실재하는 사건에 비해 사실의 구성적 측면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보면 그의 태도는 다소 석연치 않은 인상을 준다. 홀로코스트의 실재성 여부가 논란의 대상인데 홀로코스트에 관한 사실을 실재와 부합하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기본적인 사실’로 간주하는 것은 마치 논제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논란을 끝내려는 태도와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역사적 사건과 사실을 구분하는 화이트의 입장에서는 홀로코스트의 실재성에 대한 시인과 부인은 인식론상 엄밀히 말해 同列에 있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더 적절할 것이다. 화이트가 ‘수정주의자’들이 자료의 이용과 작업방식 등에서 역사학의 일반적인 룰과 기준을 그대로 따르고 있음을 지적하는 것은 그 점에서 시사적이다. 즉 화이트에게 수정주의자들은 리얼리즘과 과학성을 표방하는 역사학의 자기인식과 정체성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인 것이다. 다시 말해 화이트가 지적하고자하는 것은 수정주의자들의 시도가 자신과 같은 ‘상대주의적’ 입장과 연관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객관성을 위한 절차와 방법론을 강조하며 자신을 공격하는 비판자들의 입장과 결부된 것이라는 점이다.

수정주의자의 경우처럼 홀로코스트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않더라도 홀로코스트와 같은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로 엄청난 고통과 희생으로 이뤄진 역사적

43) *Content*, p. 76.

사건을 자유롭게 서술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일반적으로 비극 혹은 풍자 외 다른 플롯양식을 동원해 홀로코스트를 서사화 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그 점에서 화이트의 입장은 사실 곤혹스러운 것이고, 딜레마에 봉착하였다고 할 수밖에 없다. 화이트는 홀로코스트와 관련하여 역사가가 플롯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에 명확한 답을 회피하고, 다만 희극이나 또 그동안 제시하지 않았던 새로운 플롯 유형으로서 笑劇(farce)의 경우는 사람들에게 “품위 없고 불쾌한” 것이 될 것이라고만 언급한다. 그러면서도 그는 홀로코스트의 경우에도 플롯의 선택을 결정하는 것은 결코 사실이 아니라 도덕적, 미학적 기준이며, 홀로코스트에 대한 어떤 역사 해석도 진실의 문제가 아니라 의미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이처럼 화이트는 홀로코스트의 해석과 관련하여 비록 명확하게 표현은 하지 않지만 뉘앙스로써 자신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게 한다.⁴⁴⁾

화이트의 입장은 홀로코스트에 대한 시오니스트(zionist)의 해석을 둘러싼 논란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화이트는 시오니스트적 홀로코스트 해석에 대한 비달-나케(Vidal-Naquet)의 비판을 문제삼는다. 비달-나케는 홀로코스트를 ‘離散(Diaspora)’에서 이스라엘 건국에 이르는 과정에서 유대민족이 겪을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운명으로 해석하는 시오니스트의 해석에 대해 역사적 진실을 시오니즘의 관점에서 정치적 이데올로기적으로 왜곡한 것으로 비판한다. 그러나 화이트에게 시오니스트의 해석은 오늘날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정당하고 책임 있는 역사 해석이다. 화이트에 따르면 유대인에게 홀로코스트는 설러가 지적한 ‘도덕적 무정부 상태’가 지배하는 역사의 ‘승고함’, ‘허무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이스라엘의 안전과 생존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위해 나름대로 그 역사에 적극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역사의 왜곡이 아니라 역사의 본질에 해당하는 것이다. 물론 화이트의 이런 주장은 단순히 시오니즘과 이스라엘의 정책을 옹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

44) White, *Old Question*, p. 402.

는 팔레스타인에 대해서도 이스라엘과 똑같이 생존을 위한 투쟁을 정당화할 수 있도록 자신들의 역사를 해석하고 필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주장을 피력한다.⁴⁵⁾

결국 화이트의 논지에 따르면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역사해석의 진실은 현재의 정치를 정당화하는 데 그것이 얼마나 효과적인가에 달린 셈이다. 그렇다면 화이트의 입장이 궁극적으로 상대주의를 벗어나기 어렵고 역사학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다는 비판과 우려가 과장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사실 홀로코스트의 해석문제는 별개로 하더라도 화이트의 입장은 상대주의라는 비판을 모면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단적으로 말해 화이트는 과거란 항상 그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현재를 위해 연구해야 하고, 역사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 의미이며, 역사란 항상 ‘무엇에 관한 것’ 이라기보다는 ‘무엇을 위한 것’ 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화이트는 ‘수정주의자’의 경우처럼 ‘기본적인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 한 모든 역사서술은 동등한 가치를 갖는다고 본다. 즉 실증주의적 리얼리즘 역사학이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역사적 사실 자체가 상호 경쟁하는 역사해석과 서술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없으며, 이데올로기적 입장을 떠나 상호 대립하는 역사해석을 중재할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것이다. 화이트는 합리적 토론에 의한 합의의 가능성은 부인하지 않지만 그것 자체가 역사해석의 객관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오히려 직업 역사가 집단이 객관성이란 이름으로 역사적 상상력을 억제하고 특정한 규범을 강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화이트는 이해관계를 떠나 과거를 객관적으로 서술해야 한다는 ‘본래의 역사’ 들의 금언을 결코 이해할 수 없다. 화이트에게는 서사라고 하는 역사서술의 형식자체가 본질적으로 이데올로기의 수단이며, 따라서 서사형식을 취하는 한 이해관계를 초월한 중립적인 역사서술이란 불가능하다.

화이트가 역사적 상대주의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을 확인한 이상 그의 역사는 역사학에서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는 것일까? 화이트의 상대주의는 궁

45) *Content*, pp. 76-82.

극적으로 허무주의(nihilism)라는 지적, 도덕적 파탄을 초래할 뿐 역사학에 기여하는 바는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역사에 대한 화이트의 논의가 허무주의로 전락할 위험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화이트가 그것을 의도한다거나 필연적으로 허무주의로 귀결된다고 할 수는 없다. 사실 엄밀히 말해 화이트는 모든 역사서술이 다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미 지적한 것처럼 화이트는 플롯이나 이데올로기 차원의 설명양식 사이에 긴장과 갈등이 있는 역사서술을 높이 평가한다. 여러 차원의 설명양식을 도식적으로 연결하는 ‘교조적인’ 역사가보다는 대안적 해석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감수성인 가진 역사가의 역사서술이 우월하다는 것이다.⁴⁶⁾

대안적 해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라는, 역사서술의 우열을 가리는 화이트의 기준을 염두에 두면 그의 상대주의는 허무주의가 아니라 회의주의(scepticism)로 이해해야 옳을 것이다. 화이트 자신이 그 점을 강조한다. 화이트에 따르면 역사가가 회의주의, 즉 다른 사람뿐 아니라 자신의 지식에 대해서도 일관된 상대주의의 태도를 취할 경우, 그것은 관용과 책임을 가져오지 허무주의로 나아가지 않는다. 따라서 화이트의 상대주의는 자의적이고 무책임하고 비합리적인 역사서술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메타역사’에 대해 ‘본래의 역사’를 고집하는 주류 역사학에 대해 역사의 진실과 객관성을 내세워 역사를 한 가지 관점이나 한 가지 입장에서 파악하고, 단 한 가지 해석의 절대적인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나아가 그것은 합리성, 객관성, 진실 등 역사학에서 가장 보편적인 규범이라고 생각해왔던 가치들이 사실은 이데올로기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화이트는 현대 서양의 역사학은 위기에 처해 있고, 그 위기의 주요인은 19세기 이래 역사학의 전통이 된 리얼리즘과 경험주의에 있다고 본다. 화이트에 따르면 과거는 결코 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과거를 정확하게 재구성하고 그 의미를 판별할 수 있다는 생각은 낙관주의적 환상에 지나지 않는

46) 각주 10 참조

다. 더구나 현대 서양이 처한 문제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것으로서 경험주의에 사로잡힌 역사학은 문제의 해결에 더 이상 기여할 수 없다. 오히려 오늘날 역사학은 현실정치와 기성권력과 결부되어 현상유지의 기능에 빠져 있다. 화이트의 역사론은 현대 서양 역사학이 처한 이러한 위기에 대한 하나의 대응이다. 그것은 역사의 기원인 문학적 감수성을 다시 회복함으로써 역사학을 쇠신하고, 역사적 상상력에서 유토피아를 향한 힘을 얻자는 것이다.



ABSTRACT

History as Fiction: Hayden White's View of History

Ahn, Byung Jik

Hayden White is the most prominent American scholar to unite historiography and literary criticism into a broader reflection on narrative and cultural understanding. Specifically, the publication in 1973 of Hayden White's *Metahistory* marked a decisive turn in philosophical thinking about history. In this book, he offers an ambitious schema of the "poetics of history", describing four structures of emplotment, four argumentative models, and four ideological strategies. He adds to this a fourth, deeper category of analysis, also comprising four modes — the theory of tropes. Hayden White's tropology defines the "deep structural forms" of historical thought as the four literary figures metaphor, metonymy, synecdoche, and irony, each possessing its characteristic means of organizing parts into wholes. White asserts that the vision of a given historian derives not from the evidence, since the vision decides in advance what will constitute the relevant evidence, but rather from conscious and unconscious choices made among the possibilities offered by the categories of his historical poetics. Thus, given a basic honesty and competence on the part of the historian

studied, White can find no reason to prefer one account over another on historical grounds alone. The version of the past we choose depends rather on moral and aesthetic values, which ground both the historian and the audience and are beyond the call of historical evidence.

According to White, all historical interpretation is fundamentally rhetorical because interpreting is what we do when we are uncertain how to describe or explain something. This uncertainty leads the interpreter to search for the available means of persuasion, which are figural in form and which can be successfully invoked only by working through the range of tropes. Thus, tropology forms a basic component in the study of historical narrative, which fashions a unity from the diverse elements of language.

White maintains that the decision to narrativize real events as history serves the ideological function of asserting the “beautiful”, meaningful nature of the past (and present) and repressing any possible choice of encoding a “sublime”, chaotic, terrifying meaninglessness as reality. This “de-sublimation” made possible the professionalization of nineteenth-century history by cutting its traditional ties to rhetoric, which emphasizes choices among possible forms of representation. Thus, history makes the past into an object of desire by giving it the same kind of coherence found in fictions.

White’s theory of historical narrative and tropes problematizes any kind of realist empiricism and/or mimeticism, points to the inescapable present-centeredness and positional nature of all historical interpretations, queries old distinctions between ‘proper’ history and historicism by virtue of, for example, their common metahistorical status. Indeed, White maintains that historical study should show people how the past can be used to effect an ethically responsible transition from the present to the future in ways which prioritise the responsibilities of the individual by inducing in them an

awareness that any given 'present' condition is always, in part, a product of specifically human choices which can therefore be changed by further human action.

White has been accused of encouraging in some of his writings the kind of nihilism that invites radical, or even revolutionary, activism of an irresponsible kind, and his theory of historical narratives raises the specter of textual or linguistic determinism or utter relativism which White usually tried to guard against. Admittedly, says White, he is - if not a nihilist - certainly a historical relativist, but even then he somewhat underplays it, arguing that so far as he is concerned such relativism is to be seen as a basis for social toleration and not as a licence to 'do as you please'. White does not suggest that his rhetorical constructionist model is to be viewed as a kind of linguistic determinism or, for that matter, that historians are merely the instrument of their narratives. What White is doing is far more complex, for he is inviting us instead to explore language as the element in which everyone (including historians) exists and through which we all make sense of our past, present and future. In addition, he reminds us that our evaluation, interpretation and representation of the events and occurrences of the past should be, as he says, judged 'to be "relative" to the time, place and cultural conditions of its formulation'.